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2022. 1. 11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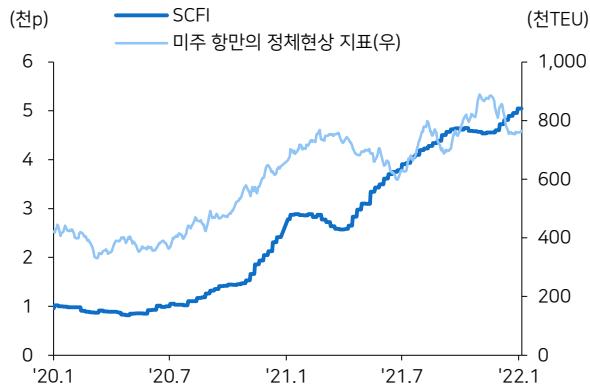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2,277.0p(-1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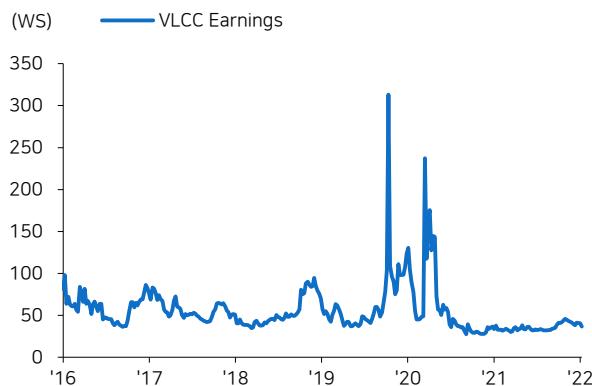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5,109.6p(+62.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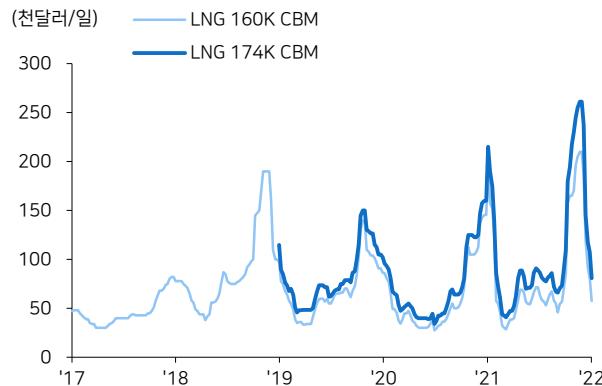
VLCC Spot Rate

36.6p(-3.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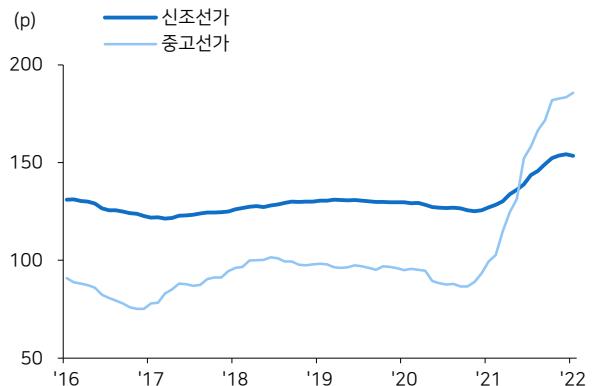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57.8p(-23.0p WoW)
80.8p(-26.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75p(+1.5p WoW)
186.0p(+3.0p WoW)



항공화물 처리량

336.4p(+0.1p DoD)
101.0p(+1.7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조선해양, 선박 9척 추가 계약 . . . 새해 3조원 규모 수주 성공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 4척, 현대삼호중공업이 LNG운반선 1척, 현대미포조선이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함.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은 16,000TEU급 이중연료 선박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임. LNG선은 174,000CBM급 선박으로 2025년 상반기 인도예정임. 현대미포조선 컨테이너선은 2,500TEU급 선박으로 2023년 하반기까지 인도예정임. (경향신문)

It's official: 2021 was a record-breaker for LNG carrier orders

2021년 LNG운반선이 90척 발주되며 최대 발주를 기록함. 마지막 피크는 2004, 2008년으로 68, 66척이 발주됨. 대형 선박은 국내 대형 3사가 독식함. (Tradewinds)

Container ship charter market kicks-off year on bullish footing

2022년이 시작됐음에도 컨테이너운임 강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대에 대한 장기용선계약 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Zim, Hapag-Lloyd, Maersk 등은 더 높은 가격과 더 긴 기간 동안의 용선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재개 압박 거세지자 "며칠 내 결정"

인도네시아 에너지장관은 10일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화상 회담에서 지난주 석탄 재고조사를 완료해 며칠 내로 석탄 안보와 수출 재개에 관해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언함. (뉴스1)

Iran oil exports rise as officials reject deadline on nuclear talks

이란은 서방국들의 핵합의 복원 압박에도 따른 원유수출량이 증가함을 자랑함.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수출 상황은 개선되었다고 언급함. 미국 UANI는 이란이 12월 140만배럴/일, 11월 125만배럴/일을 수출했을 것으로 추정함.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됨. (Tradewinds)

항공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비...올해만 16대 기재 도입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재운항을 계획 중인 하반기부터 도입 규모를 늘려 연말까지 총 10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며 티웨이항공은 내달 초부터 두 달 간격으로 중·대형기(A330-300) 3대를 인도할 계획이고, 신생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도 도입 시점은 조정 중이라고 보도됨.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올해 사업계획서에는 각각 B737MAX 5대, 1대 도입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됨. (에어진)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